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정국 다시 반복되나

윤, 이번주 재의요구권 행사 전망
오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추경호 “이탈표 나오지 않을 것”
박찬대 “검사 출신이 ‘방탄’ 앞장”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3개 법안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에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은 내달 4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 21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3개 법안에 대해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권 단독강행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 여사 특검법, 5월과 7월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은 모두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고, 3분의2 미만 찬성일 경우 곧바로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총 192석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

야권은 여당 이탈표 발생을 기대하는 한편,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재발의를 이어가면서 대여 공세를 더 강화한다는 입

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탈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건 정치인이 늘 해야 하는 과제지만, 무리하고 위험적 요소를 담은 특검법에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열린 시민단체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 집회에 참석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가 상왕 중의 상왕 대접을 받고 있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내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이게 나라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게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며 “특검과 관련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로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스물한 번인데, 이승만(전 대통령)의 마흔다섯 번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기록”이라며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더니 이승만의 기록을 새로 쓰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더니 실제 하는 행동은 딱 독재자”라며 “깨어 있는 시민과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장세일 “벼멸구 피해, 자연재해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장세일(사진) 영광군수 후보는 지난 28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함께 영광군 흥농읍 벼멸구 피해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장 후보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남 벼멸구 피해는 벼 재배면적 14만7715ha 중 1만9603ha(발생률 13.3%)로 나타났다. 또 흰잎마름병·흑명나방 등 추가 피해도 조사됐다.

장 후보는 “농민들이 벼멸구 피해로 인해 수확량 감소와 쌀값 폭락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벼멸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민주당에 적극 건의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10년전 목도열병이 자연재해로 인정 받은적이 있는 만큼 이번 벼멸구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송미령 농림부 장관, 김장배추 작황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해남군의 한 배추 밭을 찾아 호우 피해상황과 김장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장현 “선대위·돈선거추방감시단 출범”

조국혁신당 장현(사진) 영광군수 후보는 지난 27일 영광군 영광읍 장현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돈선거추방감시단 출범식’을 열고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해 황운하 원내대표, 서왕진·정준생 의원과 100여명의 선대위원이 참여했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군서면 출신 서왕진 국회의원,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23일 장현 후보의 지지선언을 한 양재휘 전 무소속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은 함께 경선을 치른 정광일·정원식·오만평 전 후보자가 각각 맡는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돈선거 감시단’도 함께 출범했다. 후보자는 재선거의 원



인이 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영광군민께 부패 근절을 통한 청렴군정 3중 세트(투명군수실 운영·군수실 CCTV 설치·상세일정 공개)를 약속했다.

조국 대표는 “영광에서도 호남에서도 자식 하나 있는 것 보다 둘이 있는 게 낫다. 그 자식 둘이 영광 군민에게, 호남 유권자에게 누가 제대로 효도를 하는지 겨루고 싶다”며 “혁신당이라는 효자를 낳아 주신 분들은 영광을 포함해서 호남의 유권자들인 만큼, 그분들에게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진보당 지도부, 영광살이로 ‘호남대전’ 가세

김재연 대표 등 재선거 총력

10·16 재보궐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재연 상임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지도부가 영광에 상주하며 ‘호남대전’에 본격 나섰다.

29일 진보당에 따르면 김 상임대표는 최근 영광으로 거처를 옮긴 데 이어 신창현 사무총장·홍성규 수석대변인 등이 영광 살이를 시작했다. 이석하 영광군수 후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후보등록도 마치고 본선을 앞둔 지금부터는 아예 짐을 모두 싸서 영광에 상주하고 있다”며 “반드시 당선으로 영광군민들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겠

다”고 밝혔다.

진보당 관계자는 “내달 16일까지 중앙당사를 그대로 영광으로 옮겼다고 보면 된다”며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과 실망 속에서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영광군민들의 기세가 무척 뜨겁다”고 말했다.

이석하 후보는 “최근 장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말이 뒤늦게 화자되고 있다. 이는 수차례 재선거를 치른 군민들에 대한 조롱”이라며 “정치적 목표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부정·부패·비리’ 없는 선거가 무엇인지 몸소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민주당, 의총서 금투세 논의...국감 전 당론 결정 가능성

오늘 최고위서 개최 시기 결정
황정아 “방향·절차 정해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9일 “월요일에 지도부 회의에서 금투세 의총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총 개최 일정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디베이트(토론)는 한 번 했고, 어떤 형태로든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곧 방향과 절차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당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30일 잇달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에서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의총 개최를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금투세 방향과 내용, 시기 등을 폭넓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당 지도부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결론 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론에서는 의견이 충돌해 당론화

추진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7일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정감사와 10·16 재보궐선거 등에 일단 당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한다.

결정 방식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황 대변인은 “의총을 통해 결정하든 지도부가 결단하든 일단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당 안팎에 선 사실상 이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과 같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은 통상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최고위원회의가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

게 위임해왔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최고위에 권한을 위임해도 결국엔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금투세와 관련한 의총은 다음 달 2일이나 4일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10월1일 국국의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고, 3일은 개천절 공휴일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재표결할 태세여서 현재로서는 2일보다는 4일 의총 가능성이 크다.

서울=김선욱 기자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선거정보 Q&A

Q.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선거운동기간은 10월3일 목요일부터 10월1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Q. 사전투표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사전투표기간은 10월11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 소씩 설치됩니다. 선거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A. 선거일은 10월16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투표소 현황 등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